

## 쌍쓰끄리땀 교육을 위한 교재들의 쟁점과 모색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국문초록

한국 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학계에서도 쌍쓰끄리땀 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일은 거의 없었다. 급변하는 고등교육의 환경과 매체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쌍쓰끄리땀 교육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본 논문은 몇 가지 논의점을 제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교습자와 학습자에게 활용가능한 다양한 교재들을 소개하고 서평 방식의 비평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인 '문법책'으로 분류되는 출간물들 중에서도 교재로서의 본격적인 체제를 갖춘 것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체제 구성에서 피할 수 없는 문법서술에서의 구조적인 결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한 역사적 맥락의 문제를 밝힌다. 앞의 문제는 문법서술의 틀을 정하는 일에서 빠니니전통과 역사비교언어학의 갈림길을 맞게 되는 문제인데, 어느 한 쪽을 따르던 초기 교재들의 맥락과 의미를 되짚어 본다. 특히 윌니(Whitney)의 문법책 출간을 계기로 영미학계의 빠니니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의 맥락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유럽전통을 전제로 한 교육과 인도 전통방식의 교육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과 번역물로 채워져 있는 한국어 교재들의 현실을 살펴본다. 이에 보태어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어권 교재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서평을 제시하고, 한국인 학습자의 교육이라는 맥락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각 교재의 장단점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음성파일 제공을 넘어서는 방식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학계의 흐름을 언급하고, 한국 학계에서 쌍쓰끄리땀 교육의 문제를 한국의 교육환경이라는 맥락 안에서 논의하고 나름의 해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주제어: **쌍쓰끄리따** 교육, **쌍쓰끄리따** 교재, **쌍쓰끄리따** 문법책, **빠니니전통**, **역사비교언어학**

## I. 들어가는 말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쌍쓰끄리따(**samskr̥tam** [vākyam], 영어 Sanskrit)이라는 사실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쌍쓰끄리따를 배운다. 그런데 한국에서 근대적인 쌍쓰끄리따 교육이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sup>1)</sup> 쌍쓰끄리따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제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2)</sup> 하지만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공유하며, 근현대 식민지로서의 인도와 연관관계를 맺어 온 맥락 안에서 교재를 개발해 온 역사가 있는 서구의 경우를 한국의 상황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sup>3)</sup>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쌍쓰끄리따를 교육해야 한다는 맥락의 차이와 교육제도의 차이는 한국적인 쌍쓰끄리따 교육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사용이 가능한 쌍쓰끄리따 교재들에 대한 개괄적인 서평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연구사적 맥락과 문법서술의 이론적 맥락이 비판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활용도 높은 자료나 최근 출간되거나 공개되어 활용가능한 자료들이 소개

1) 근대 이전의 쌍쓰끄리따 교육은 역사적으로 따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며, 언어교육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싯담(Siddham, 悉曇) 문자 사용이나 만트라(Mantra, 眞言) 암송 등은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인다. 유가 지식인들의 문집에 종종 등장하는 “梵字”에 대한 언급도 비슷한 맥락이고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2) Otter 2012; Tull 2015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 본 논문에서는 “쌍쓰끄리따문법”은 “문법”으로 “쌍쓰끄리따문법책”은 “문법책”으로 줄여서 언급하겠다. “교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용어는 일반적으로 강성용 2011을 따른다. 선교사들의 문법책 혹은 교재 편찬에서 출발되는 역사적 맥락은 강성용 2017에서 이미 개괄한 바 있으며, 본 논문의 주제는 아니다. 털(Tull 2015, 226)은 19세기에만 50종이 넘는 “Sanskrit grammar or grammatical reference books written in European languages appeared”라고 지적하고 있다.

되기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법책”이라고 불리는 출간물들은 대략 학습을 위한 교재와 참고(consulting)를 위한 자료를 모두 포괄하는데, 후자는 분량의 제한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다. 참고용 문법서들은 이론적인 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고, 학습용 교재로서의 체제를 갖춘 출간물들만을 본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sup>4)</sup> 또한 현재 한국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맥락 안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선별해서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 II.1. 문법서술의 틀 문제

각 교재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자면 역사적 발전의 맥락에서 그리고 문법 서술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적 양상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쌍쓰끄리땀이라는 대상언어가 주어진 역사적 맥락 때문에, 그리고 문법서술의 틀(paradigm)을 정해야 한다는 구체적 필요의 면에서 모든 교재들은 빠니니 체계와 역사비교언어학 체계의 두 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데 교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이론적 타당성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학습의 효율성과 대상언어의 역사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로 모음층위를 상징할 때 *ø*(약형)-*a*(기본형)-*ā*(강형) 체계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구나”(gūna) 혹은 “브린디”(vr̥ddhi)의 개념 없이 문법을 서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이 용어들이 너무나 오래 그리고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용어들이 모음의 약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는 문법서술의 틀을 전제하기 때문이다.<sup>5)</sup> 결국 선택은 학습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떠날

4) 이 둘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교재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않았지만 학습을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저술된 문법서들이 역사상 아주 많고 또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들의 제목이 “문법”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지만, 참고자료의 용도로 저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미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문법책을 저술할 때부터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분명하게 강의 혹은 학습을 위한 교재로서의 체제를 갖춘 단행본으로 논의의 대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독해를 위한 자료나 어휘를 확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자료 등도 모두 논의에서 배제한다. 이러한 구분 자체를 무시하면 Tull 2015, 247에 나타난 것처럼 교재인 *Devavāṇīpraveśikā*와 Deshpande 2001이 참고용 문법서인 Whitney 1889의 완결성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독해 연습용 교재인 Lanman 1884에 비해 그 자료 취사의 온전함(fullness of its selections)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당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교재는 교재로서의 쓰임과 목적이 있다.

5) 근본적으로는 인도유럽어의 Ablaut(모음교체) 체계를 어떻게 서술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설명들이 최소로 잡더라도 2,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다 보니, 전승된 언어 자체를 교육을 통해 규정한 면이 있다.

수 없기 때문에,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용어들을 포기할 때 얻는 이익과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인 모음강화 체계를 따를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곧바로 말뿌리를 사전에 표기할 때  $\sqrt{dhr}$ 로 할지  $\sqrt{dhar}$ 로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도 얽혀 있다.<sup>6)</sup> 모음층위를 설명할 때 선택하는 틀은 형태론 전체의 틀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와 다르게 빠니니문법의 설명틀이 그대로 수용되는 예들도 많다. 구체적으로  $\sqrt{gam}$ 의 현재 3인칭 단수형 “gacchati”는  $\sqrt{vad}$ 의 “vadati”와는 완전하게 다른데, 이것들이 모두 동사의 제1갈래로 상정된다.<sup>7)</sup> 예로 시킴형(causative)과 제10갈래가 같은 것인지 아닌지도 역사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결국 문법서술에서는 -aya- 뒷토를 사용하는 단일한 갈래로 간주된다. 실제로 빠니니문법 이전부터 채택되어 온 10개 갈래로 동사를 나누는 체계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설명의 효율성에 대해 진지한 도전을 받아 본 적이 없다.<sup>8)</sup> 그리고 모든 사전들이 이 체계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틀을 벗어나는 일에는 실익이 없다고 보인다.

결국 모든 문법책들은 구조적으로 빠니니문법의 틀과 역사비교언어학의 틀을 비롯한 다른 틀 사이에서 합목적적인 선택을 통한 최적점을 찾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틀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리스어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된 라틴어 문법체계의 틀이다. 품사론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 체계의 특성과 맥락 그리고 역사적 발전과정이 크게 다른지라 일괄해서 썩쓰끄리땀 문법서술에 알맞는 틀인지의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교재를 집필하는 저자라면 각 경우마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시체의 이름들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활용의 특정한 형태를 부르는 이름은 대부분 라틴어 문법전통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각 활용형의 이름들은 구체적으로 해당 활용형의 쓰임이나 의미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perfect”(완료형)은 분명하

6) 예로 PW III, 868은  $\sqrt{dhar}$ 로 MW 519a와 Apte 600a는  $\sqrt{dhr}$ 로 표기하고 있다.

7) 정확하게 따지자면 빠니니 자신도 아마도 이전의 베다전승전통들이 구축한 말모양분석전통(prātisākhya)에서 차용해서 사용한 「Dhātupāṭha」(말뿌리목록)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어기는 하지만, 빠니니가 사용한 체계인 것은 맞다.  $\sqrt{yam}$ (yacchati),  $\sqrt{r}$ (rccchati) 등은 그리스어의 -σχω- 라틴어의 -scō에 해당하는 -sk-현재형이다. 10갈래 구분에서 별도로 구분되지 못했지만, 원칙상 한 갈래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들이다. Mayrhofer 1978, 66은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8) 현재 필자에게 알려진 모든 사전들과 참고자료들은 이 체계를 따른다. 정확성이 아니라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고려한 최적점을 빠니니전통이 찾아 냈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Maurer 1995/2009 I, 61도 설명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 내용은 이 틀을 따르며 각 갈래번호도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게 때때김(tense)이 아닌 모때김(aspect)의 의미를 담고 있다. “imperfect”(과거형)<sup>9)</sup>는 때때김상 과거를 나타내지만 모때김(aspect)상으로는, 완료되지 않거나 못 하는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활용이라는 함축을 담게 된다. 즉, 계속되거나 또는 반복·지속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완료형으로 나타내기에 부적절한 사태를 서술하는 형태라는 말이다. 쌍쓰끄리땀의 경우에는 과거형이 고전그리스어처럼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과거를 가리킨다거나 라틴어에서처럼 과거의 반복된 동작이나 과거의 진행중 이던 동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쌍쓰끄리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의 형태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다만 역사적 연관성 때문에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근거로 (형태론적 측면에서)<sup>10)</sup> 동일한 형태라고 간주 될 수 있을 뿐이다.<sup>11)</sup> 그리고 실제로 “LAN̄”(과거형)이라는 빠니니가 사용하는 이름 자체도 형태론적인 요소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9) 스페인어나 프랑스어에서 “imperfect”라는 문법용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 형태가 과거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완료형(perfect)으로 서술하기 적당하지 않은 과거를 나타내는 활용형태라는 예측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같은 로망스어 계통에 속하는 라틴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imperfect”라는 용어가 라틴어의 “imperfectus”(끝나지 않은)에서 온 말이고 이것은 고전그리스어에서 “*παρατατικός*”(이어지는)에 해당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당연하다.

10) 쌍쓰끄리땀의 동사활용형태의 외형만을 볼 때, 다시 말해서 형태론상으로 볼 때, 이와 일치하는 동사활용이 고전그리스어와 라틴어에도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imperfect”라고 부르기 때문에 쌍쓰끄리땀에서도 똑같이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고전어들이 공유하는 활용형태가 있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역사적 맥락이 다르게 주어지는 셈이다.

11) 빠니니가 과거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예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빠니니는 “*anadyatanabhūte LAN̄*”이라고 해서 “오늘과 관계되지 않는 [과거]”라고 이 활용형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의 정확한 내용이나 의도는 불명확하고, 또 실제 과거형이 사용되는 맥락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과거형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문법학전통에서 제공하는 설명이나 빠니니전통이 제공하는 설명 모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완료형도 유사한 경우가 된다. 인도문법전통은 과거형과 완료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형은 과거의 일인데 화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고, 완료형은 과거의 일인데 화자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닌(*parokṣabhūtakāla*)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한다. 이 설명은 실제 언어현실과는 먼 허구적인 구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문법전통에서 주어진 규정이 후대의 완료형 사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접태형(*ao*rist)은 고전쌍쓰끄리땀에서 과거의 사태를 서술하는 또 다른 형태이다. 인도문법전통에서 “*adyatanabhūte LUN̄*”이라고 해서 “오늘 있었던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고 이름을 붙이고, 아주 가까운 과거의 일을 나타낸다고 해석해서 다른 과거형들과 의미 상의 차이를 두고자 하지만, 실제 용례에서 이 구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12) “LAN̄”은 동사활용을 서술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지소리 “L”에 표지소리 “N̄”을 추가한 것이다. 이 표지소리는 제이인칭뿔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동사의 활용 과정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들로 네 개의 L-요소, LAN̄, LIN̄, LUN̄, LRN̄의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빠니니가 사용하는 문법적인 전문용어는 의미를 설명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Devavāṇīpraveśikā*가 의도적으로 시제의 이름에 대해서는 빠니니의 전문용어를 적극 도입하고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II.2. 목적과 맥락의 두 양 극단

우선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거의 모든 교재들이 나름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 두 양 극단점이 있다. 한 쪽은 바로 인도의 전통방식이고 다른 한 쪽은 유럽의 전통방식이다. 인도의 전통방식 중에서도 현대 인도에서 제도권 교육을 위해 개발된 교재들만이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sup>13)</sup> 이 교재들도 전통방식을 제도화시킨 교육의 형식을 전제하고 있어서 대략 “전통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외우는 과제들이 정해지고, 또 그 학습방식과 맞물려 인도전통 안에서 전승된 텍스트들이, 예로 동의어사전과 운문으로 이루어진 문학작품들이 암기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대상으로 활용된다.<sup>14)</sup> 이 맥락에서 학습되는 사전이란 동의어사전의 형식을 지닌 것들이고 암기의 과정에서 일정한 어휘를 습득하는 수단이 된다. 이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 다만 한국에서 중등교육과정 전체를 쌍쓰끄리따를 배우는 일에 주력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학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국어와 사회적·문화적 배경 면에서 전통방식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전제를 갖춘 학생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만큼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한 채, 무척이나 매력적인 제목을 붙여 인도에서 출간된 교재들, 예로 *Learn Sanskrit in 30 Days*라거나 *Speak Sanskrit in Ten Days* 혹은 *Sanskrit An Appreciation without Apprehension* 등의 교재는 우리에게 학습교재로서의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미 쌍쓰끄리따 초급을 마친 학습자가 연습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교재로서의 활용성은 거의 없고, 기초적인 내용전달이 불가능해 보이는 출간물들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고려할 만한 교재들은 최근 인도에서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 쌍쓰끄리따 회

13) 스승의 집에 머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니고, 한국의 학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하거나 혹은 일반화시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14) Gerow 2002는 전통적인 방식의 쌍쓰끄리따 교육이 현재의 인도에서 어떻게 제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며 체험에 기반한 정보를 주고 있다. Mysore Sanskrit College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습과정과 방식 그리고 그 단계별 목표설정 등에 대한 선입견 없는 정보를 잘 전달해 주고 있다. 실제로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인도 전통방식의 암기 학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언급하고(664b), 인도전통의 동의어사전, 대표적으로 *Amarakośa* 등이 어떻게 교육방식과 함께 엮혀 있는지(665ff.)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로우의 이 글은 쌍쓰끄리따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인도의 쌍쓰끄리따전통에 연계된 현대적 교육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화(spoken Sanskrit)를 표방하는 교재들이다.<sup>15)</sup> 이 교재들은 많은 경우 최근 인도의 정치지형과 연관되어 힌두국수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흐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쌍쓰끄리따 부흥운동과 연관되어 있다.<sup>16)</sup> 초급 과정을 마친 학습자라면 이러한 형태의 쌍쓰끄리따를 배우고 활용해 보는 것도 권할 만한 일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sup>17)</sup> 하지만 이 교재들이 한국에서 초급 교육에 사용되기에는 무리인 것이 당연하다.

이와는 아주 다른 맥락에서 유럽의 고전학과 문헌학 전통에 입각한 교재들이 있다. 전형적인 예로 필자가 제시할 교재는 바로 Mayrhofer 1978이다. 마이어호퍼는 KEWA의 저자로 인도유럽어 연구 분야의 대가로 꼽히는 학자이다. 그런데 이 교재의 크기가 대략 B6 용지 규격이면서 총 110쪽밖에 되지 않는다. 이 작은 분량 안에 문법설명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록(Anhang)에는 짧지만(104~108쪽) 시대별, 장르별 예문들과 그 번역도 담고 있다.<sup>18)</sup> 음운의 설명 부분에서 문자까지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13~15쪽)은 부담스럽게 보이지만 놀라운 간결함 속에 모든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문법책이다. 하지만 이 모든 간결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독자가 고전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이미 소화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인도유럽어들에 대한 이해와 독해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인도유럽어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서양고전어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유럽의 현대어들을 두루 익히는 유럽전통의 교양교육을 전제한 교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한국에서 학습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교습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재를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어 교재라는 사실은 접어 두고라도, 한국에서의 학습교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교재들보

15) 대표적으로 Rāṣṭriya Saṃskṛta Saṃsthānam에서 출간되는 *Saṃskṛtasvādhyāyah*(쌍쓰끄리따 독학)교재 시리즈를 언급할 수 있다.

16) 이러한 맥락 안에서의 쌍쓰끄리따의 단순화와 변형의 양상 그리고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Hastings 2003 참조.

17)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종류의 교재에서 주어지는 문장들이 과연 쌍쓰끄리따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kadā snātakotsavaḥ mahāvīdyālaye?”라는 Prasannātmananda Saraswatī 1996: 52에 제시된 문장이 “대학 총동창회가 언제입니까?”(When is the convocation in the college?)라고 배운다면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쌍쓰끄리따가 과연 ‘죽은’ 언어인지의 논쟁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이 현대의 ‘살아 있는’ 쌍쓰끄리따라고 받아들이는 데에 필자는 반대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문장을 익히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 크게 회의적일 뿐이다.

18) 즉, 아마도 쌍쓰끄리따를 빠르고 정확하게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저술이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다 간결하지만 정확한 역사비교언어학적 설명들을 거의 모든 대목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탁월한 교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급교육을 마친 학습자나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훌륭한 교재이다.

이렇게 인도문화의 배경이나 유럽문화의 배경을 강하게 전제하는 교재들을 한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화학습을 위한 교재로 이 두 부류에 속하는 교재들의 활용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맥락의 중간 어느 한 곳에 서서 쌍쓰끄리땀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어느 한 쪽의 우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배우고자 하는 목적과 맥락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이 두 전통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방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베다시기의 언어나 중세어로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거나 인도유럽언어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유럽전통의 방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인도전통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의 쌍쓰끄리땀에 관심을 가진 학습자들에게도 최근 들어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가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쌍쓰끄리땀 회화 강좌가 열리는 경우가 많고,<sup>20)</sup> 주목할 만한 교재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의 일부로 쌍쓰끄리땀을 배우고자 한다면, 결국 유럽전통에 좀 더 가까운 교육방식과 교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면모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 III. 교재의 계보

인도 안에서 혹은 주변 문화권에서 개발되고 전수되던 쌍쓰끄리땀교재를 제외하면, 서구의 역사 안에서 쌍쓰끄리땀 교재가 본격적으로 “문법”의 형태로 제시되고 다루어 지던 것은 선교사들에서 시작된다. 선교사들에서부터 시작된 교재로서의 사용을 염두

---

19) 이 문제를 Tull 2015: 236은 서구의 쌍쓰끄리땀 교육의 맥락에서 “실제 사용하는 쌍쓰끄리땀”과 “언어학을 위한 쌍쓰끄리땀” 사이의 간극 혹은 대립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쌍쓰끄리땀을 배우고자 하고 가르치고자 하는가 물어야 한다.

20) 대표적인 쌍쓰끄리땀 회화 강좌의 하나였던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의 강좌는 2019년 2월부터 인도 바라나씨로 장소를 옮겨 이어지고 있다.

에 둔 문법책 편찬의 역사는 무척 길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미 인도 내에서 만들어져 있던 **쌍쓰끄리따** 교육교재의 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 키일호른(Kielhorn)으로 대표되는 인도전통을 따르는 방식의 문법책 전통이 자리하고 있고, 이 전통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책으로는 쉬텐즐러(Stenzler)의 책을 꼽을 수 있다. 원래는 유럽에 수용된 빠니니전통에서 출발했지만, 빠니니전통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적대적이라 할 만한 결별의 노선을 따른 대표적인 문법책은 윌니(Whitney)의 문법책이다.<sup>21)</sup> 이 문법책들의 계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계보가 곧 서구 인도학의 역사와 맞물려 있고 교재 편찬의 지향점을 정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게 인지되어야 한다. 교육을 위한 목적에 맞는 교재다운 교재를 서구에서 처음 만들어 낸 역사는 아마도 뷔일러(Bühler)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야 마땅하다. 1883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학습을 위해 **싼디(sandhi)**의 내용들을 여러 과에 걸쳐서 분산해 배치한다거나 하는 놀라운 현대적인 체제의 교재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 48과에 걸쳐 순차적으로 문법을 익힐 수 있게 하고 각 과의 학습내용을 각 과의 연습문제를 통해 익힐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는 펼침페이지에서 데바나가리문자들의 결합형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맨 끝에는 **싼디**들을 일괄해서 볼 수 있는 긴 표를 펼침페이지에 첨부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로 적절한 난이도의 연습문제가 가능하도록 필자 스스로가 만든 문장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sup>22)</sup> 덕분에 이 교재는 1900년대 말까지도 전 세계에서 표준 강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이 교재의 문법서술 체계는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Bühler 1883/1927, iv) 키일호른(Kielhorn 1870)<sup>23)</sup>의 문법서술을 따르고 있는데, 키일

21) Whitney 1879는 처음에 독일에서 출간된 책이다. 나중에 윌니의 입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윌니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문제와 연관된 점들과 II.1에서 언급한 문제는 필자가 2017년 Hangzhou Buddhist Academy에서 발표한 글, “Considerations on the Theoretical Issues and Practical Problems in Preparing Sanskrit Course Books in Korean”에서 언급한 바 있다.

22) 교재에 관한 아주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주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교재 집필자가 만든 문장을 통해 학습자들을 연습시키는 것이 과연 실제 원문 자료가 아닌 ‘가짜’ 쌍쓰끄리따를 익히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능하다. 반대편 극단의 예가 바로 Otter 2012: 16에서 주장되고 Coulson 1976/2003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된 입장이다. 활용가능한 쉬운 쌍쓰끄리따 원문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든 쌍쓰끄리따 강좌가 갖는 시간상의 제약을 강독 자료와 문법설명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해서 해결하겠다는 구상과 함께(12-13) 제기된 주장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텍스트들은 중세어의 간섭을 강하게 받은 고전기 말의 특정한 시기와 장르의 텍스트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문체는 고전쌍쓰끄리따에서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다. 인도의 원전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낯나는 단순논리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다.

23) 키일호른의 문법책은 상당한 정도의 분량을 가진 책이지만, 학습자 혹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편리한 점

호른의 문법서술이 빠니니전통에 충실했던 만큼 결국 뷔일러의 교재는 빠니니전통에 입각한<sup>24)</sup> 현대적 강의교재였던 셈이다.<sup>25)</sup>

이 뷔일러의 교재가 세계적인 표준 교재로 자리잡게 된 것은 페리(Perry)의 영어번역 때문이었다. 그런데 페리는 1885년 번역에서는 분명하게 뷔일러의 책을 번역한 것이라고 제목에서부터 밝히고 있지만(Perry and Bühler 1885) 1936년 판에서는 뷔일러의 이름을 아예 빼고 자신의 저술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배후에는 인도문법전통은 오류로 가득한 것이라는 태도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태도를 만들어낸 것이 훔니였다. 훔니 자신도 유럽에서 배웠고 처음 독일에서 출간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인도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드러지게 되었고 북미에서의 인도고전학 전통을 지배하는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페리는 이 태도를 받아들여 자신의 문법서술 체계가 반영되는 한에서, 다시 말해서 훔니의 문법서술이 근거가 되는 서술이 주어지는 한에서, 뷔일러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인도전통을 따른 책을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번역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저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태도를 취한다.<sup>26)</sup>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납득이 불가능한 이런 표절 사건은 이 당시 영미권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빠니니전통에 대한 역사비교언어학의 학문적인 우월함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sup>27)</sup> 한국의 연구자와 학습자들이 훔니의 문법책을 두루 사용하는 한에서는 항상 염두에 둘 만한 측면이다.

---

이 많은 책이다. 거의 모든 곡용과 활용의 형태를 생략하지 않고 일일이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면에서는 충실한 빠니니문법의 요약형이라는 점이다. 현대어 문법교재를 사용하면서 빠니니체계에 따른 서술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면, 최소한 전문적인 연구의 맥락이 아니라면,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임에 틀림없다.

24) 명사곡용의 표를 제시할 때에는 항상 부름격(sambodhana)을 인자격의 바로 뒤에 배치하고 있다.

25) 키일호른의 문법책에서 명사곡용을 설명할 때에는 끝자음명사가 우선 제시된다. 그 수가 작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표준적인 명사곡용을 보여주는 것은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재들의 체제와는 다른 면이다.

26) Perry 1885, iv를 보라. 각주 21에 언급한 필자의 글 197-199쪽에 자세한 논의가 있다. 재미있게도 훔니뿐 아니라 Max Müller의 문법책을 1886년에 발췌하여 출간했던 맥도넬(Macdonell)도 1901년 자신의 문법책에서는 인도전통과의 결별을 지향했다.

27) Tull 2015, 234ff.에서 이 맥락을 보라.

## VI. 한국어 교재들

페리의 책이 서구에서 표준 교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이 표절된 교재는 한국에서 다시 표절의 역사를 겪는다. 정태혁은 페리의 영어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책을 오려 복사하는 방식으로 편집해 출간했는데, 자신의 저술로 이름을 붙였다. 제대로 된 출판 물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지만 영어 번역 자체도 큰 오류가 너무나 많았다.<sup>28)</sup> 문제는 번역자가 쌍쓰끄리땀 초급문법의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태혁은 페리의 책에 나온 데바나가리 표기의 읽기연습 부분을 오려내서 각 과마다 복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sup>29)</sup> 그런데 지금의 상식으로 보기에 놀라운 것은 정태혁이 자신의 저서라고 설명하는 서문에서 다른 책들을 복사·삽입한 후반부까지 모두 본인의 기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0)</sup> 이 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198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sup>31)</sup>

28) 원래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뷔일러의 책 8과에서는 한 대목에(Bühler 1883/1927, 15) 다음과 같이 쓴다 (sandhi)에 대한 예외가 설명되고 있다.

e) Das ī, ū und e des Duals der Verba und Nomina, sowie der Auslaut von einem Vocale bestehenden Interjectionen, geht mit nachfolgenden Vocalen keine euphonische Verbindung ein, z. B.: … “동사와 명사의 양수에서 나타나는 ī, ū, e와 그리고 단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감탄사의 끝에 오는 모음은 뒤에 따라오는 모음과 발음의 편의를 위한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

이 구절을 페리는 (46쪽)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161. Certain final vowels maintain themselves unchanged before any following vowel. Such are 1. ī, ū, and e as dual endings, both of declension and of conjugation; thus, …

2. The final, or only, vowel of an interjection: thus, … .

이 번역을 보면 최소한 페리는 뷔일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페리의 영어를 본 정태혁은 페리의 설명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정태혁은 84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a. 語形變化와 動詞變化의 兩數의 活用語尾인 ī, ū, e와 첫 모음, … b. 感歎詞의 母音과 첫母音 … .

29) 예로 8과의 연습문제 문장에서 페리는 “ityatra”라는 단어의 위에 “\*”표시를 하고 각주에서 독자들에게 앞서 설명되지 않고 제시되는 “iti”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태혁의 책 86쪽에 복사된 똑같은 연습문제의 같은 구절 위에도 “\*”라는 각주표시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각주의 설명은 없다.

30) 정태혁 1968/1985, v-vi: 本書執筆에 있어서 研究篇 各課에 梵字로 練習問題를 넣은 것은 梵字를 눈에 익히게 하기 爲함이요, 또한 全篇을 基礎·研究二篇으로 區分한 것이 重複되는 感이 있으나, 學習上 便宜를 圖謀코자 한 것이니 活用해 주기 바란다.

같은 시기인 1986년에 한국어로 번역·출간된 교재가 또 있는데, 정호영이 혼다(Gonda)의 *Kruze Elementar-Grammatik der Sanskrit-Sprache* (3판, 1948)을 번역한 것이었지만, 일본어 번역(Yoroi tr. 1974)을 근거로 한 중역이었다.<sup>32)</sup> 이 책은 일본어 전거와 번역 과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는 학문적인 상식을 지키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일본어 번역자인 요로이가 혼다의 교재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과 영어 번역을 참고해 가면서 추가한 것들이 반영되는<sup>33)</sup> 등의 장점도 있는 책이었다. 따라서 정태혁이 페리의 교재를 번역한 것과 비교할 만한 책은 아니었지만, 뷔일러의 책처럼 학습 교재로 개발된 체제를 갖는 책은 아니었고, 일본어 중역의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다. 정호영이 나름대로 일본어의 한문을 바꾸는 대목들도 있기는 하지만<sup>34)</sup> 일본어의 불명확한 표현을 교정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sup>35)</sup> 일본어에 의지하는 일은 결국 한국어에서 마련되지 못한 (그리고 많은 경우 이해되지 못한) 일본어 한자를 그

31) 정태혁의 활동이 당시 한국 학계에서 지니고 있던 나름의 의미를 밝히는 맥락에서라면 정승석 2014, 36에서 쌍쓰끄리따 교재와 연관된 내용을 보라.

32) 정호영 역 1986, 1은 이 점을 밝히고 있다.

33) Gonda, 鑑淳 역 1974, i 그리고 Gonda, 정호영 역, 1986, 1.

34) 예로 Gonda, 정호영 역 1986, 15: “§3. 音階(Gradation)에 의한 모음의 변화(Ablaut)”은 일본어 “§3. 階次(Gradation)による 母音の變化 (Ablaut)”을 조금 바꾼 것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인도유럽어의 맥락에서 Ablaut, 즉 모음층위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Gonda, Ford Jr. tr. 1966, 11에 “weak grade-full grade-lengthened grade”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일본어에서 “低音階/弱音階-標準階-長音階”라고 옮기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한국어에서 차용하고 있다. “저음”의 반대말은 “고음”이 아닌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인다. Gonda, 정호영 역, 1986, 15에서 “in pausa”의 번역을 일본어 “絶對語尾”를 그대로 차용해서 “絶對語尾”라고 하고 있는데, “어미”는 “어간”에 대조되는 말로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영어 번역의 “absolute final position”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리고 36쪽에서 “전혀”를 긍정문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소한 오류는 많다.

35) Gonda, 정호영 역 1986, 102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들을 구분하는 대목에서는 아래의 설명이 나온다: “베다어에서는 아오리스트가 현재성을 갖는 과거를 표현하며, …… 완료는 옛 문헌에 있어서, 현재에 종결되기에 이른 동작을 나타낸다. 산스크리트어에서 과거(impf.)는 항상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완료는 거의 항상 그 의미를 갖는다.” 이 서술은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이고, 번역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대목이다. 일본어 번역(0495)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내용인 즉 현재와 연관되는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 모매김(aspect)을 표시하던 시제는 원래는 접매형(aorist)였고, 아주 고층의 언어에서만 완료형이 특정한 모매김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과거형은 항상 자간 과거에 대한 서술인데 현재와의 연관성을 함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완료형은 그 이름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과거형과 마찬가지로 의미로 사용된다는 말이다. 심각한 예를 들자면, 51쪽에서 “ātmanepada”의 번역어로 “反射(中間)”이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본어 번역 46쪽은 “反射”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면서도 56f.쪽에서 실제 동사활용표를 제시할 때에는 “반사태”라고만 적고 있다. 일반 관행을 따르자면 “반사태”라기보다는 “재귀태”라고 해야 한다. 즉 “ātmanepada”가 왜 일본어에서 이렇게 번역되었을지에 대해서, 고전그리스어에 등장하는 재귀적 용법의 동사 사용과 연관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로 한국어로 차용하는 방식의 한계를 노정하고 만다. 물론 이 한계는 아직까지도 한국의 인도학계, 특히나 불교와 연관성이 강한 인도고전학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라 정호영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교재로서의 체제를 갖추지는 않은 한국어 참고자료로 스기누마의 책을 이지수가 번역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지수가 번역한 교재(菅沼, 이지수 역, 1990)는 학자적인 상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꼼꼼하게 정비된 모습을 가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일본어로 된 문법책을 꼼꼼하게 번역하고 있기는 하지만,<sup>37)</sup> 결국 일본어 원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한자표기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남아 있다.

이렇게 한국어로 출간된 문법책들이 있지만, 뷔일러의 원본을 번역한 것은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질이고, 그 외의 교재들은 학습교재로서 사용되기 위한 체제를 갖춘 것들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다 보니 한국의 학습자들에게서도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몇몇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비출간 자료들을 준비해서 강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나, 정식 교재나 문법책이라고 간주되기 어려운 자료들이 출간되면서 나름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도 있다.<sup>38)</sup> 이와는 약간 맥락이 다른 것이 이진스의 교재(Egenes 1989/2003)이다.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쌍쓰끄리따 교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대학강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쌍쓰끄리따 교육의 전단계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sup>39)</sup> 한국에서는 자주 사용

36) 예로 28쪽에서 모음 층위를 “기초모음-guṇa-vṛddhi”로 설명하고 있으며 109쪽에서는 일본어 원문에서의 “ātmanepad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37) 전반적으로 드물지만 오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56쪽의 친족명사 관련 번역부분은 오류가 있다. “jāmātr” [m.]을 “양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의 “son in law”의 오역인 것으로 보인다. “양자”가 아니고 “사위”가 맞다.

38) 대표적으로 봉선사 산스크리트 편집실에서 2012에 출간한 자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봉선사 산스크리트 편집실”을 저자 이름으로 한 “산스크리트 문법 인도문화의 그릇이자 대승불교의 수레바퀴”라는 제목을 달고 2012년 남양주에서 출간된 비공식 출간물이다. 이 출간물 xiv쪽에서 P. S. Joshi의 마라티 (Marāṭhī) 저술과 *A Manual of Sanskrit Grammar*의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이 자료는 일관된 체계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집필된 저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잡다한 정보들을 나열해서 묶은 것인데, 교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이고 공식 출간물도 아니어서 구체적인 논의에서 다루지 않는다.

39) Egenes 2000, xii에서 저자 자신이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어 번역이 『산스크리트 입문』 1 & 2. 토마스 이진스 저, 김성철 역. 서울: 씨아이알. 2015로 출간되어 있다. 이 교재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다중적인 맥락들이 있다. 인도고전 전공과정의 부재와 기계적인 강의평가 시스템과 맞물려 문제를 낳는 강사의 불안정한 신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대로 된 쌍쓰끄리따 강좌의 개설과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의 비판적인 의식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 교재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인도고전의 원문을 소화해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제대로 된 후속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sup>40)</sup>

## VII.1. 영어 교재들의 큰 맥락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강의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재가 전무에 가깝다 보니 현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 교재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리의 교재로 강의하고 윌니(Whitney)의 문법책을 참고자료로 삼아 랜먼(Lanman)의 강독자료집을 읽는 방식의 교육과정은 영미권에서 강한 전통으로 자리잡아 “Perry-Whitney-Lanman method”라고 불리우며 1980년대까지도 관행으로 이어오고 있었다.<sup>41)</sup> 이제는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교재들이 출간되었는데, 크게는 서구 중등교육에서 그리스와 라틴어 교육이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북미권을 중심으로 외국어 학습의 사회적 관행이 크게 약화된 사실이 배경이 되었다. 대학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고전어 학습에 필요한 문법서술의 기

---

The text is not a complete survey of Sanskrit grammar, or even a primer. It is meant to be a “pre-primer,” a step-by-step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language.

따라서 이 교재와 번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이 책은 종교적인 관심에서 쌍쓰끄리따에 접근하는 부담 없는 학습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교재인데, 예로 크리шна 신앙을 위해 쌍쓰끄리따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s://sanskritstudio.wordpress.com> 2019-02-25 확인)에서 극찬을 받는 교재가 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40) 강성용 2019도 1권만 출간된 상태이고 계획된 2권과 부속 학습서가 미출간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는다.

41) Reigle and Reigle 2006, 12:

“For about a hundred years, from the 1880s until the 1980s, Sanskrit instruction at American universities meant the “Perry-Whitney-Lanman method,”

이 관행의 배후에는 북미 인도고전학의 전승관계(paramparā)가 자리잡고 있는 면이 있다. Tull 2015, 214f.; 236에서 Whitney의 학맥이 어떻게 북미 인도고전학계에 넓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준다.

본 개념들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는 교재들은 대부분 특정한 대학에서 특정한 학자가 긴 기간 강의를 하면서 개발해 온 배경을 가진 책들이다.<sup>42)</sup> 또한 최근 인도고전학자들이 훗니처럼 경직된 방식으로 인도문법전통을 대하지 않게 되었고, 특히나 교육의 맥락에서는 아주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되었다는 사정도 중요한 요소이다.<sup>43)</sup> 따라서 최근에 사용되는 교재들은 원리론적인 문법서술 체계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는 교육과 학습의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sup>44)</sup>

## VII.2. 주요 영어 교재들

우선 언급할 교재는 *Devavānīpraveśikā*이다.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완결성(complet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하지 않은 분량 안에서 원전 자료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주요한 문법사항을 빠짐없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일년의 초급 과정에서 배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서 초급 강독으로 이어지기에 무리가 없다.<sup>45)</sup> 연습문제의 배분이나 간결한 설명의 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교재이다.<sup>46)</sup> 내용상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많은 유럽전통의 문법용어보다는 빠니니전통의 용어를 적극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sup>47)</sup> 이것은 초급교재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42)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관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상황은 북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학자들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43) Tull 2015, 240는 Edwin Gerow나 George Cardona 같은 학자의 접근방식이 북미학계에서 인도(문법) 전통을 대하는 다른 태도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교육을 마친 이후에 인도에 가서 다시 전통방식의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다.

44) 빠니니전통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인도유럽어연구의 성과와 결합된 지식체계의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문법서술의 실용적 맥락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상식으로 자리잡은 사정이 배경에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교재에 대한 고민은 한국학계에서 이러한 지적 성취가 공유되는 과정을 함께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45)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실제 북미나 유럽의 교육현장에서는 문법의 마지막 부분들이 3학기 초급 강독 강의로 이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Aklujkar 1989/2005 교재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후속 전공 교육과정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문제는 남는다.

46) 콧소리 ñ과 연관된 오타들이 종종 있다는 점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210ff.쪽에 제시되는 겹낱말(samāsa)의 설명에서는 dvandva-겹낱말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들에서 항상 기계적으로 맨 앞의 단어부터 순차적으로 한 단어씩 뒤의 단어들과 결합시키는 기계적인 방식의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상 잘못되어 있는 대목이다.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익혀야 할 기본적인 쌍쓰끄리따 문법용어를 익히는 장점은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게 상정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썬디나 문법 내용 서술에서 학습과 연습의 관점이 아니라 문법 서술의 옛날 방식을 따른다는 것에 호불호가 나뉠 것이다.

북미권에서 다음으로 영향력이 강한 교재로는 데쉬판데(Deshpande)의 *Samṣkrta-subodhinī*와 Maurer 1995와 Aklujkar 1989/2005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데쉬판데는 문법전통 전공자다운 간략한 설명을 담은 교재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습자가 설명할 수 있는 체제로 교재를 구성했다. 빠니니전통의 용어와 설명들을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시켜 담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추가설명은 제공되고 있다.<sup>47)</sup> 썬디규칙은 설명하지만 예와 연습에 방점을 두어 분산 배치하고 있다. 복잡한 내용은 수업에서 교습자가 다루어 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에 필자는 동의한다. 그리고 형태론적 서술보다는 예문과 구문을 통한 학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아마도 그래서 별도의 강독자료가 책 끝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러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습자를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 한국에서 효용성을 가진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면이 있다. 학습내용의 나열은 데쉬판데의 판단에 따라 상당부분 재배열되어 있다. 모러(Maurer)의 교재는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록(Appendix)에 날라이야기를<sup>48)</sup> 읽기 연습내용으로 그리고 그 뒤에 곡용표들과 활용표들을 포함한 찾아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활용하기 좋은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모든 문법현상과 문법용어들에 대해 인도유럽어의 맥락에서 다양한 예와 역사적 서술을 통해 분명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50)</sup> 이는 연습문제에 등장하는 표현과 개념의 맥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학

47) xiv쪽에서 저자가 이러한 선택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앞서 II.1에서 언급한 문제의 대응이라고 보이는데 (예로 53쪽 4.19 등), 이는 교수자는 빠니니전통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48) 예로 61쪽에서 과거를 표현하는 다른 형태들의 의미상의 차이는 빠니니의 설명을 언급하고, 사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49) 날라이야기가 교재의 첫 읽기 연습용 텍스트로 채택된 것은 Franz Bopp이 1819년에 라틴어 번역과 함께 *Nalus, Carmen Sanscritum Mahābhārato*를 출간한 이후로 무한반복에 가까운 전통을 가진 관행이다. 이에 대한 설명과 비판적 검토는 Tull 2015, 213-214를 보라.

50) 예로 “ātmanepada”에 대해 왜 “middle voice”로 번역되는지 116f.쪽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교재가 진행되는 필요에 대해서 서문 xiv쪽에서 밝히고 있다.

습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배치를 따르고 있는데(vi쪽), 모든 양수(dual) 형태의 학습은 뒤로 미루어진다. 따라서 암기하는 패턴이 인도전통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독자라면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2과에서 현재형과 과거형 동사를 동시에 배운다거나 3과에 독립형(tvā/ya)을 배치하는 등에서 그 독특함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독학을 지향하는 학습자라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초급을 마친 독자가 반복과 연습을 겸한 심화학습을 고려한다면 가장 권할 만한 교재라고 생각된다. 라틴어 문법전통에 따라 “ablative of separation”처럼 기능에 따른 격의 이름을 일부러 사용하는데<sup>51)</sup>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유용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보다는 학습자의 지습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지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교재가 Aklujkar 1989/2005이다. 인도문법전통 전문가로서 89년에 다른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교재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보충해 온 결과물인데, 두 학기 안에 문법을 마친다는 교육체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학습자를 배려하는 면이 두드러진 교재이다. 교재가 기획된 초창기부터 음성과일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2권에 걸친 문법교육과 별도로 제3권에 연습 내용을 분리해서 담아 영어권 학습자들의 독학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교재이다. 그래서 데바나가리는 3권의 연습문제에서 사용된다.

또 다른 지향점을 확실하게 지닌 교재는 바로 Killingley 2004이다. 킬링리의 교재는 세 권의 분량과 65과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 실제로 강의에서 사용되는 예가 드문 교재이다. 하지만 이 교재의 최대 강점은 바로 아주 쉬운 내용에 대한 무한반복에 가까운 연습을 통해 실제로 살아 있는 언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쌍쓰끄리땀을 익힌다는 사실이다. 썬디의 설명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이 교재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문법설명이라거나 이론적인 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가는 언어의 습득에 초점을 맞춘 교재이다. 그리고 이 교재의 가장 큰 체계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빠니니문법 전통과 결별하고 역사비교언어학의 입장에서 문법사항들을 설명하고 제시한다는 점이다. 여타 다른 교재들과는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다. 이 교재는 첫 권이 다 끝날 때까지 인도문자를 도입하지 않는다. 여타 많은 교재들이 첫 대목에서 발음과 함께 한꺼번에 데바나가리를 익히게 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따라서 필자는 Egenes

51) viii쪽에서 이 점을 스스로 언급한다.

의 교재처럼 학습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해야 하는 맥락이라면 활용도가 높은 교재라고 생각한다. 이 교재의 단점은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문법적인 내용들, 즉 동사의 활용 형태들 중의 완료나 접태형(aorist) 같은 복잡한 내용들이 끝부분에 몰려 자리잡는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언급되어야 할 교재라면 Coulson 1976/2003이 있다. 실제로 살아있는 감각을 배울 수 있도록 다소 파격적인 방식의 구성을 갖춘 책이다. 앞서 각주 22에 언급된 문제의 맥락에서 희곡작품의 산문 문장을 예문으로 채택하고 문법의 번잡한 설명을 피하기 위해 영어의 예를 동원하고 어려운 설명은 서양고전어의 개념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서 한국인 학습자의 활용에 한계는 있겠지만, 다른 교재들과 다르게 구문과 관용표현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교재라는 것에 큰 차별점과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운문에 대해 설명하는 15과의 내용은 별도의 참고자료로 사용가치가 있다. 컬슨의 교재는 한국인 독자들에게는 반복학습 자료로 권할 만한 책이다.

## VIII. 매체환경의 변화와 쌍쓰끄리따 교육의 미래

이 외에도 다양한 교재들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sup>52)</sup> 최근의 교재들이 교육적인 효율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적극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변화와 학습자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을 국내 교수자들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사용된 예가 적지 않은 음성파일을 활용하는 일을<sup>53)</sup> 넘어서는 예가 등장하고 있다. Ruppel 2017의 경우 교재의 출간과 동시에 교재를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http://cambridge-sanskrit.org/>)가 구축되어 웹사이트에서 단어의 플래쉬카드나 문자연습용 파일 그리고 강좌 동영상까지 제공하고 있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쌍쓰끄리따 교육을 수행하더라도 주목해야 할 변화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특히 문자언어인 한문(漢文)이 고전어의 표준적인 형태로 각인된 한국의 전통 안에서 고전어로서의 쌍쓰끄리따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해 갈 것인가

52) 예로 Guhe 2008은 독일어 교재이고 平岡昇修 2008은 일본어 교재인데 CD가 첨부되어 있다.

53) 프랑스 어학교재 전문 출판사에서 Sans Peine 시리즈로 발간된 Balbir 2013은 이미 5장의 CD와 MP3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 3장의 CD를 첨부한 平岡昇修 2016의 예가 있다. 비슷한 자료로는 Hall 2008도 꼽을 수 있다.

지 개방된 자세를 갖춘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현 대학체제의 현실 안에서 초급 문법의 내용을 두 학기에 배우는 일이 불가능하고, 학습부담의 경감을 피할 수 없다면, 학점 부담이 없는 동영상 강의등을 활용한 보충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충강의를 여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의 협력강의(co-teaching) 형태로 조직하고 수강생의 성취도를 출석 평가를 통해 평가할 수 있게 한다면, 학습자들이 교육체제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인다. 이렇게 학습자의 지리적 위치나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른 제한을 넘어서는 수업과 학습가능성이 주어진다면 다양한 인도나 아시아 혹은 불교 관련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쌍쓰끄리따 교육을 수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약초

- Apte: Vaman Shivaram Apte. 1890. *The Practical Sanskrit-English Dictionary*. Poona: Shiralkar.
- KEWA: Mayrhofer, Manfred. 1956-1980. *Kurzgefaßtes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s Altindischen*. 4 Bände.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ätsverlag.
- MW: Monier Monier-Williams. 1899.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Etymologically and Philologically Arranged with Special Reference to Cognate Indo-European Languages, New Edition Greatly Enlarged and Improved with the Collaboration of E. Leumann and C. Cappeller*, Oxford: Clarendon Press [reprint, 1979].
- PW: O. Böhtlingk und R. Roth. 1855-1875. *Sanskrit-Wörterbuch*, 7 Bde., St. Petersburg [reprint 1990, Delhi: Motilal Banarsidass].

## 2차 자료

- 강성용. 2011. 『빠니니 읽기: 인도 문법전통의 이해』. 파주: 한길사.
- 강성용. 2017. 「쌍쓰끄리따 문법의 서술, 그 역사적 맥락과 쟁점들」 『인문학연구』 109: 307-333.
- 강성용. 2019. 『Saṃskṛtavākyaopakriyā 인도고전어 쌍쓰끄리따 첫마당』. 서울: 라싸.
- 정승석. 2014.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의 학문과 실천,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 양성」 『인도철학』 42: 33-60.
- 정태혁. 1968. 『標準 梵語學』. 서울: 보림각 [수정판 1985, 서울: 경서원].
- Egenes, Thomas(토마스 이진스, 김성철 역. 2015. 『산스크리트 입문』 2권. 서울: 씨아이알.
- Gonda, J.(안 혼다, 鎧淳(요로이 키요시) 역, 辻直四郎(쓰지 나오시로) 감수. 1974. 『サンスクリット語 初等文法』. 東京: 春秋社.
- Gonda, J.(안 혼다), 정호영 역. 1986. 『산스크리트語 文法』.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Suganuma, Akira(菅沼晃), 이지수 옮김. 1990. 『산스크리트의 기초와 실천』. 서울: 민족사.

平岡昇修(Hiraoka, Shoshu). 2008. 『初心者のための サンスクリット 文法 I』.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平岡昇修(Hiraoka, Shoshu). 2016. 『耳から覚えるサンスクリット CD3枚付き』. 東京: 山喜房佛書林.

菅沼晃(Suganuma, Akira). 1980. 『サンスクリットの基礎と実践』. 東京: 平河出版社.

Aklujkar, Ashok. 1989/2005 *Sanskrit: An Easy Introduction to an Enchanting Language* 3 vols. Richmond, B.C.: Svādhyāya Publications. [reprint 2005, first published 1989, *Sanskrit for English Speaking Adults*].

Balbir, Nalini. 2013. *Le Sanskrit Collection Sans Peine*. Chennevières-sur-Marne: Assimil.

Bühler, Georg. 1883. *Leitfaden für den Elementarcursus des Sanskrit mit Übungsstücken und zwei Glossaren*. Wien: Carl Konegen [reprint 1988,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Nachdruck von der 2., Joh. Nobel durchgesehenen Auflage, Wien, 1927].

Bühler, Georg and Edward Delavan Perry. 1885. *A Sanskrit Primer Based on the Leitfaden für den Elementar-Cursus des Sanskrit of Professor Georg Bühler*. Boston: Ginn and Company.

Coulson, Michael. 2003. *Teach Yourself Sanskrit*. Revised by Richard Gombrich and James Benson. London: McGraw-Hill [first published 1976, *Sanskrit An Introduction to the Classical Language Teach Yourself Books*. Hodder and Stoughton].

Deshpande, Madhav M. 1997. *Ṣaṃskṛtasubodhinī A Sanskrit Primer*. Ann Arbor: Center For South and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reprint 2007].

Egenes, Thomas. 1989. *Introduction to Sanskrit*. Part One. San Diego: Point Loma Publications [reprint 1994, Delhi: Motilal Banarsidass: 3rd Revised Edition 2003, Delhi: Motilal Banarsidass].

Egenes, Thomas. 2000. *Introduction to Sanskrit*. Part Two. Delhi: Motilal Banarsidass.

Gerow, Edwin. 2002. "Primary Education in Sanskrit: Methods and Goal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22,4: 661-690.

Goldman, Robert P. and Sally J. Sutherland (Goldman). 1980. *Devavāṇīpraveśikā: An*

- Introduction to the Sanskrit Language*. Berkeley: Center for South and Southeast Asian Studies, UC Berkeley [revised editions 1987; 1992; 1999; 2002; 2004].
- Gonda, Jan. 1941. *Kurze Elementar-Grammatik der Sanskrit-Sprache mit Übungsbeispielen, Lesestücken und einem Glossar*. Leiden: E. J. Brill [3te verbesserte Aufl. 1948; R. Rocher 프랑스어 번역 1966; Gordon B. Ford Jr. 영어 번역 1966].
- Guhe, Eberhard. 2008. *Einführung in das klassische Sanskrit Ein Lehrbuch mit Übungen*. Wiesbaden: Harrassowitz.
- Hall, Bruce Cameron. 2008. *Sanskrit Pronunciation Booklet & CD*. Pasadena: Theosophical Uni. Press.
- Hastings, Adi. 2003. "Simplifying Sanskrit." *Pragmatics* 13.4: 499-513.
- Kielhorn, Franz. 1870. *A Grammar of the Sanskrit Language*. Bombay: Government Central Book Depôt [revised 2nd ed. 1880, German translation: Franz Kielhorn. *Grammatik der Sanskrit-Sprache*. Aus dem Engl. übers. von Wilhelm Solf. Berlin: Dümmler. 1888].
- Killingley, Dermot. 2004. *Beginning Sanskrit A Practical Course Based on Graded Reading and Exercises*. Revised by Dermot Killingley and Siew-Yue Killingley. revised second edition, 3vols. Newcastle upon Tyne: Grevatt and Grevatt.
- Macdonell, Arthur Anthony. 1901. *A Sanskrit Grammar for Students*. [3rd edition 192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aurer, Walter Harding. 1995/2009. *The Sanskrit Language An Introductory Grammar and Reader revise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ayrhofer, Manfred. 1978. *Sanskrit-Grammatik mit sprachvergleichenden Erläuterungen*. 3. Auflage.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 Müller, Friedrich Max and Arthur Anthony Macdonell. 1886. *A Sanskrit Grammar for Beginners. New and Abridged Edition Accented and Translated throughout with a Chapter on Syntax and an Appendix on Classical Meters by Arthur Anthony Macdonell*. London: Longmans, Green and Company.
- Otter, Felix. 2012. "Die sieben Leben einer, toten' Sprache. Überlegungen zur Didaktik des universitären Sanskritunterrichts." DOI: <10.11588/xarep.00002170> [checked 31. August 2017].
- Perry, Edward Delavan Perry. 1936. *A Sanskrit Primer*. [reprint 1986, Delhi: Motilal

Banarsidass].

Prasannātmānanda Saraswatī. 1996. *Speak Sanskrit in Ten Days*. Mumbai: Central Chinmaya Mission Trust.

Reigle, David and Nancy Reigle. 2006. "Sanskrit Language Study: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Selected Materials in English." Eastern Tradition Research Institute (<http://www.easterntertradition.org/article/Bibliographic%20Guide%20-%20Sanskrit%20Language%20Study.pdf>; 2019-01-03 확인)

Ruppel, A. M. 2017.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Sanskri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aw, Bharat S. 2004. *Sanskrit An Appreciation without Apprehension*. Setubandh Language Series Volume 5. New York: Setubandh Publications.

Srinivasachari, K. 2008. *Learn Sanskrit in 30 Days*. Chennai: Balaji Publications.

Stenzler, Adolf Friedrich. 1868. *Elementarbuch der Sanskrit-Sprache Grammatik Texte Wörterbuch*. Breslau: Max Malzer [Fortgeführt von Richard Pischel, Umgearbeitet von Karl F. Geldner, 17. Auflage.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0].

Tull, Herman. 2015. "Whence Sanskrit? (*kutaḥ saṃskṛtamiti*): A Brief History of Sanskrit Pedagogy in the West." *International Journal of Hindu Studies* 19.1-2: 213-256

Whitney, William Dwight. 1879. *A Sanskrit Grammar including both the Classical Language, and the Older Dialects, of Veda and Brahmana*. Leipzig: Breitkopf und Härtel.

## Critical Review of Sanskrit Course Books with an Eye to the Future of Sanskrit Education

Sung Yong KANG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anskrit education has seldom been the main source of interest in the circle of professional Sanskritists worldwide, including Korea. However, confronting the drastic change of social settings around higher education makes more serious consideration and discussion of Sanskrit education timely. This paper, concentrating exclusively on Sanskrit course books, points out some structural problems that are hardly avoidable for any Sanskrit course book. And a short genealogy of Sanskrit grammar books is introduced and contextualized, in order to reveal the historical contexts of the widely used Sanskrit course books, and their specific features that deal with structural and practical problems of didactic presentations of the language. On the course, the meaning and stance of W. D. Whitney's grammar book, used in western academia, is clarified and discussed to contextualize the *Sanskrit Primer* of Perry, which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Bühler's *Leitfaden*, but declared a separate publication based on Perry's subjective estimation. This marks a paradigm shift in the preparation of a course book that, at least nominally, departs from the Pāṇinian tradition.

Nowadays, textbooks show various attempts to find the optimal educational focus, while respecting and adopting advantageous aspects of

the Indian traditions. So far, Korean textbooks (worth mentioning) have not yet developed, and so English publications are widely used in college level Sanskrit courses in Korea. Critical reviews of some frequently used English textbooks are included and mention is made of the practical applicability for Korean students of those individual materials. The latest trend of textbooks that reflect th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is introduced and the need for an open attitude to cope with this trend is raised.

**Keywords:** Sanskrit grammar, Sanskrit course book, Sanskrit education, G. Bühler, W. D. Whitney

2019년	3월 10일	투고
2019년	4월 3일	심사완료
2019년	4월 3일	게재확정